**2019 국제학부 하계 일본 OJT 보고서**

응용화학생명공학과

201420372 공태경

1. **선발 및 과정**

교환학생 준비를 위해 학교 공지 사항을 확인하던 중 우연히 OJT선발 공지를 보게 되었다. 평소에 일본에 관심이 많고 JLPT N2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번 OJT 역시 흥미가 가게 되었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다.

신청서와 함께 성적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후 교수님과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면접은 지원 동기, 포부, 앞으로 일본어 공부 계획 등에 대한 질의를 일본어로 진행하였다. N2가 있었고 평소 일본에 여행을 가서도 불편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을 갖고 면접에 입하였으나 N2합격이후 일본어를 전혀 공부하지 않았고 면접이란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어려움이 많았다. 언어라는 것이 원래 안 쓰면 까먹게 되고 N2라는 베이스가 있으니 종강 이후 공부를 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수님의 말씀과 함께 면접이 끝나고 일본어로 된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함께 일본어 공부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셨다. 처음으로 한글의 일본어 타자기를 사용해봤지만 평소 핸드폰의 타자기에 일본어 타자도 추가해 놓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최종 합격통보를 받고 출국 약2주전 교수님과 합격자 모두 모여 일정 확인과 교류를 위해 사전 미팅을 가졌다. 일정과 복장 규정, 주의사항 등을 공지 받고 이후 서로 통성명과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하는 것으로 사전 미팅이 끝나고 출국날이 되었다.

1. **일정**
   1. 19.7.28 일요일(1일차)

9시10분 출국 비행기였기 때문에 미리 6시 30분에 모이기로 하였다. 항공사 앞에서 교수님과 만나 표 발권과 수속을 마치고 히로시마 공항에 도착하였다.

히로시마 공항에 도착한 이후 공항 리무진을 타고 히로시마역에 도착하였다. 그 후 교수님께선 저녁 식사를 위해 6시까지 교수님의 호텔로 모이라는 공지와 함께 숙소로 가셨고 우리도 체크인을 위해 숙소로 갔다. 체크인 시간이 2시간가량 남아 짐을 맡기고 각자 자유시간을 가지다 자유롭게 체크인하기로 하였다.

나는 점심을 먹기 위해 번화가로 갔다. 주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쇼핑을 즐기거나 친구를 기다리는 모습이었고 우리의 주말과 같은 모습에 여기저기 서성이며 가족과 지인들의 선물을 보다보니 배고픔도 잊고 시간이 흘렀고 숙소로 돌아가 체크인을 하였다. 숙소에 들어가자 에어컨이 틀어져 좋았다. 하지만 에어컨을 얼마 누리지 못하고 교수님과의 저녁 식사를 위해 교수님의 호텔로 함께 이동하였고 교수님과 히로시마풍 오코노미야끼를 먹으며 내일 일정을 점검하고 격려를 받는 것으로 첫째날의 일과가 끝났다.

* 1. 19.7.29 월요일(2일차, 출근 1일차)

교수님은 교통을 위해 히로시마역 근처로 숙소를 잡으셨고 우리는 가격과 방의 질을 위해 회사 도보 10분정도 거리에 위치한 역과 좀 떨어져 있는 곳으로 숙소를 잡았다. 같이 모여 출발하기보다 회사 앞에서 교수님과 만나기로 하여 출근시간 10시 이전인 9시 30분에 모여 회사로 들어갔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회사의 소개가 있었다. 이번에 연수를 담당하신 다이코 IWS는 다이코 기업의 계열사 중 하나로 간단하게는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주로 네트워크, 서버의 기술지원이나 시스템 개발이 주로 하는 IT업무이기 때문에 OJT 대상자들에게 코딩 실습을 계획되어 있었으나 3명중 1명만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여 일정에 없었다. 회사 소개를 마친 후 4일간의 일정 계획을 듣고 점심시간이 되어 사장님과 교수님과 점심식사를 가졌다.

점심식사를 마친 후 사장님은 업무를 위해 출장을, 교수님도 다른 업무를 위해 숙소로 돌아가셔서 참가자 셋만이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오후에는 각자의 PC를 설치하고 사칙(社則)에 대해 배웠다. 회사의 비밀보장에 대한 것은 물론, 앞으로 회사에서 준수해야할 규칙들에 대해 배웠다. 내용 자체는 누구나 공감하는 간단한 매너이고 규칙이지만 한명씩 규칙들을 읽는데 이 때 부족한 일본어를 체감하였다. 받아쓰기하듯 단어의 발음을 적어가며 읽는데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교육을 담담하신 요츠야 씨에게도 죄송함을 느끼며 일본어 공부에 대한 자극을 받았다. 그 후 사내에 한국인 직원이 있어 한국인 직원과의 면담시간을 가졌다. 화요일부터는 외근업무를 가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셨는데 각자의 질문, 일본 취업을 하기 위한 방법과 노력, 일본에서의 생활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업무가 끝나기 30분 전 담당이신 요츠야 씨와 이시우에 씨와 클로징 미팅을 가졌다. 클로징 미팅은 오프닝 미팅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30분 전후로 진행되어 그 날의 소감이나 퇴근 후 계획, 관광조언 등을 받는 시간으로 첫 날은 히로시마의 관광지에 대한 소개를 받고 퇴근하였다. 퇴근 후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한 후 숙소로 돌아와 에어컨 바람을 쐬며 휴식을 취하였다

* 1. 19.7.30 화요일(3일차, 출근 2일차)

2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9시부터 출근하여 5시에 퇴근하는 일정을 가졌다.

8시50분에 도착하여 간단하게 오프닝 미팅을 하여 전날 저녁에는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당일에 할 일에 대해 브리핑하는 것으로 일과가 시작되었다.

둘째 날 오전에는 명함을 만들었다. 자신의 간단한 주소나 연락처를 넣고 인쇄하여 행정담당인 히라다 씨와 함께 명함 교환에 대해 실습하였다. 이런 비즈니스 매너는 현장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후 전화 응대 교육이 있었다. 군대나 인턴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아는 기본적인 예절이며 멘트 역시 한국과 똑같으나 고객의 전화일 경우에 고객을 회사보다 높여 표현하며 사내의 경우에도 압존법에 신경써서 말하는 것이 부족한 일본어로는 많이 어려웠다. 하지만 히라다 씨께서 상황을 설정하여 실습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우에 따른 다양한 표현들을 전화로 말할 수 있었고 이 역시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후 점심시간이 되어 휴식 시간을 가졌다. 주변 식당이 대부분 술집이라 늦게 열어서 편의점에서 먹어야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도시락 배달 서비스가 있어 직원분들과 함께 도시락을 신청하여 먹었다. 500엔이라는 편의점과 비슷한 저렴한 가격에 품질도 좋아 매일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였다.

점심식사 이후에는 요츠야 씨께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 배웠다. 보고서에 꼭 넣어야하는 사항, 넣으면 안 되는 사항에 대해 배우며 당일부터 일일업무보고를 작성하게 되었다. 학부생일 때에도 실험보고서를 쓰고 먼 미래에 취업을 해서도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실험보고서에서 했던 실수를 반성하고 부족했던 점을 피드백하는 기회가 되었다. 교육 이후 그 날 행하였던 업무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요츠야 씨에게 제출하여야 했고 작성 및 제출과 클로징 미팅을 끝으로 둘째날의 업무가 끝났다.

퇴근 후에는 원폭돔과 평화 공원 관람을 관광하였다. 회사에서 도보로 20분거리였고 번화가에서 멀지 않아 저녁식사 후 공원을 산책하며 둘째 날을 마무리 지었다.

* 1. 19.7.31 수요일(4일차, 출근 3일차)

출근 3일차부터는 일정의 대부분이 마지막 날에 있을 프레젠테이션의 준비였다. 오전에는 요츠야 씨에게 전날 제출하였던 일일업무보고의 피드백을 받았다. 표현의 부자연스러움이나 일본에서는 쓰지 않는 어휘 등을 수정 해주시며 현지인이 아니라면 헷갈리기 쉬운 어감의 차이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는데 문장이 자연스러워짐을 느끼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점심식사 이후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였는데 발표의 주제는 한국의 관광지 소개, 외국인은 모르는 한국의 매력, 아주대의 소개, 대학에서 했던 연구, 자신의 꿈, 외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라는 6가지의 주제였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말하기도 편하고 꿈을 위해 온 자리이기 때문에 장래의 꿈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파워포인트를 제작하고 일일업무보고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과가 끝났다.

퇴근 후에는 백화점에 가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 대화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스스로에게 뿌듯하였으나 관광 일본어 정도 실력밖에 안된다고 자책하며 하루를 마쳤다.

* 1. 19.8.1 목요일(5일차, 출근 4일차)

담당자신 요츠야 씨께서 전날부터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일일업무보고와 미팅은 없었다. 남은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하고 대본을 작성하며 준비하였다. 점심시간에 요츠야 씨가 복귀하셨고 3시부터 요츠야 씨와 이시우에 씨의 참관 하에 발표가 시작되었다. 나름 대본도 써가며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일본어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하니 긴장도 되어 말도 더듬고 정적이 흐르는 등 많은 실수를 하며 다시 한번 일본어 공부의 부족함을 실감하였다. 발표 후에는 두 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발표를 준비하기 이전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잘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며 좀 더 꿈에 대해 접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발표 후에는 원래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이 끝나야 했으나 요츠야 씨의 출장 일정으로 인해 밀리게 되면서 일일업무보고 피드백과 연수 보고서는 취소되어 아쉬웠다. 따라서 발표 후에는 최종 미팅을 하며 4일간의 소감을 말하고 특산물 가게나 명물과 함께 격려를 받았다. 그 후 사무실에서 전 직원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배웅을 받으며 회사를 나왔다.

끝나서 후련하기보다 이제야 적응했는데 떠나야하는 짧은 일정을 아쉬워하며 세명이 가볍게 반주를 즐기고 숙소에서 공중목욕탕을 즐기는 것으로 마지막 밤을 마무리하였다.

* 1. 19.8.2 금요일(6일차)

귀국 비행기가 18시 10분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 일본의 3대 절경이자 히로시마의 관광명소인 미야지마에 갔다. 미야지마는 히로시마에 위치한 섬으로 바다 위 토리이와 신사가 매력이었다. 항구에서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 관광을 하고 다시 히로시마역으로 돌아와 공항 리무진을 타고 히로시마 공항에 가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으로 일본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1. **마치며**

처음 지원을 할 때에는 JLPT 자격증이 있으니 일본 취업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원하였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마치며 크게 느낀 것은 두가지였다.

첫번째는 현지인들과 생활하며 느낀 것은 관광 언어와 현지인에 녹아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큼을 실감하였고 반성의 계기를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일본 여행을 하며 불편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만을 했지만 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말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부족함을 느꼈다. 하지만 항상 말을 하다 표현에 고민이 생겨 정적이 흐를 때에도 조용히 기다려 주시는 직원분들을 보며 부족하여도 이해해주시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함을 느끼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다. 또한 최종 미팅의 때에도 부끄러워도 괜한 말이라도 해야 언어는 향상되는 것이라는 요츠야 씨의 말과 함께 앞으로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정진해야 한다는 자극도 받았다.

두번째는 해외 취업에 관해 느낀 것이 컸다. 처음에는 그냥 일하는 곳만 외국일 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사장님과 이시우에 씨, 요츠야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타지에서 일하는 것이니 각오가 되어있지 않고 하나의 가능성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왔다가 실망하고 본인과 회사 모두의 자원만 소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 역시 가볍게 생각하고 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한다면 좀 더 자기 분석과 목표를 뚜렷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닫고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관광을 가서도 느끼는 바가 정말 많은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지인과 같이 생활하며 일본 경험 중 가장 많은 것을 느끼고 온 것 같다. 굳이 일본 취업에 생각이 없더라도 평소 외국에서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 혼자 가는 여행과는 다른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